

# 함께하는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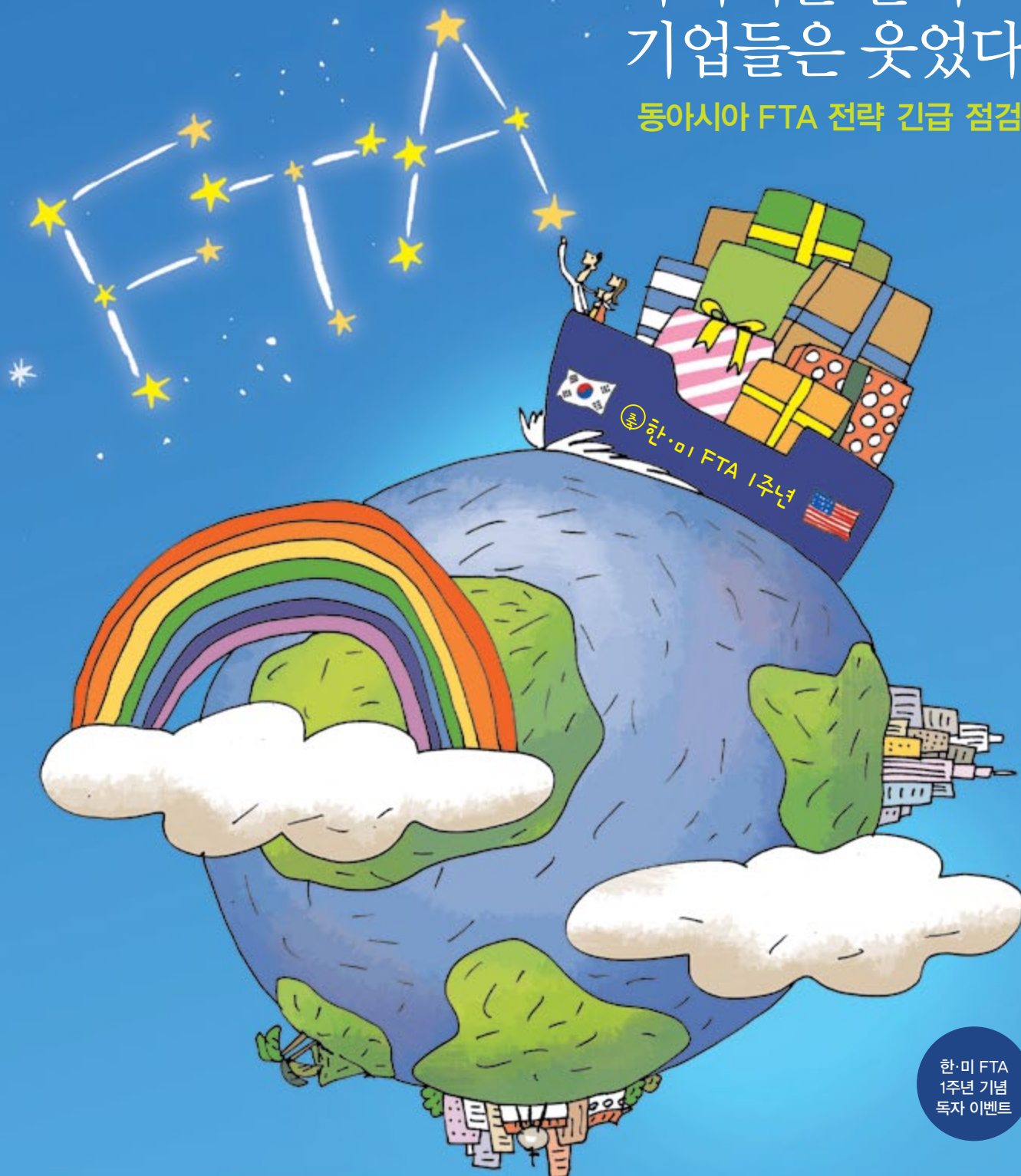
April 2013  
www.ftahub.go.kr 'vol. 11'



한·미 FTA 발효 1주년 특집

## 바이어들 줄서고, 기업들은 웃었다

동아시아 FTA 전략 긴급 점검



한·미 FTA  
1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

# 한·미 FTA, ‘FTA매직’은 계속됩니다!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투자활성화계기를 제공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발전된 미래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무용사 최기림

FTA 캠페인



## FTA에 대한 새로운 생각 전파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 “한·미 FTA, 편견 없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은애 · 한대성 · 이지희 한미친선 대학생 홍보대사

안녕하세요, 한미친선 대학생 홍보대사 2기 인사드립니다! 사실 언론매체 인터뷰는 처음이다 보니 얼떨떨하네요. 난생 처음 언론사를 방문해 사진도 찍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소중한 경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열심히 촬영에도 임하고 인터뷰도 하니 뿌듯하네요.

한미친선 대학생 홍보대사가 뭘 하는 건지 궁금하시다구요? 저희 같은 젊은이들 중에 막연히 미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막연한 감정적 인식 대신 한미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저희의 생각과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무역협회의 선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겨울방학을 이용해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외교부 북미국, 미8군 한미연합사 등 미국 유관 기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강연도 들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내용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과의 만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서는 수시로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미국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 번역하고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무작정 미국을 편드는 것이냐구요? 무조건 미국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알고 판단하

김은애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08학번

이지희  
한국항공대학교  
영어학과  
12학번

한대성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07학번

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2008년 촛불시위 때 저희도 친구들이 하는 루머 수준의 얘기를 별 생각 없이 흘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축산분야 자문위원이던 아버지가 해 주신 얘기를 듣고 많은 부분이 오해나 지나친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다시 생각해 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더 많이 알았더라면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한대성)

또 한·미 FTA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다. FTA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인데, 언론매체에서는 부정적인 내용만 과장되다 보니 이런 뉴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홍보대사 교육을 받으면서 객관적 사실 위주의 내용을 들어보니 장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한국도 이를 잘 이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어요. (이지희)

한미친선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은 개인적으로는 그간 가치관·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운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다 보니 이대로 사회 나가면 꼭 막힌 사람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정보를 얻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김은애)

앞으로도 저희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

정리 | 우종국 기자 사진 | 김기남 기자

CONTENTS

01 FTA 캠페인  
“한·미 FTA, 편견 없이 봐야 하지 않을까요?”

04 축하메시지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축하합니다

06 인트로 칼럼  
한·미 FTA 발효 1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커버 스토리

한·미 FTA 발효 1주년 특집  
바이어들 줄서고, 기업들은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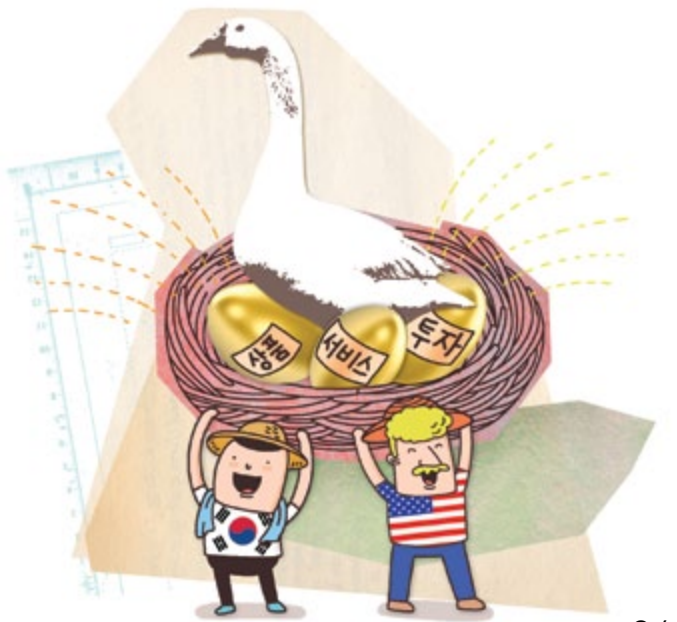
08 한·미 FTA 발효 후 1년 간 성적표  
대미 수출·무역수지 증가...활용률 더 높여야

10 한·미 FTA로 수출에 날개단 중소기업들  
가격경쟁력 커지자, 바이어들 줄섰다

12 한·미 FTA로 저렴한 수입물가  
선택권 넓어지고, 가격 싸지고...소비자 혜택 늘어

14 미국에서 바라 본 한·미 FTA  
제조업·서비스 수출 증가...장기적 효과 '기대'

16 특집 인터뷰: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 세터’...투자처로도 매력적”



06



16



22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3년 4월 5일(통권 11호)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3 April vol.11  
www.ftahub.go.kr



10



26

FTA 즐기기

18 ‘사급’의 원산지 판정 시 주의점  
사급 외의 원재료 섞일 경우 주의해야

19 카톤  
한국의 수출 경쟁력, FTA로 ‘파워 업’

20 대구FTA활용지원센터  
FTA 교역 비중 높아...맞춤형 지원 ‘눈에 띄네’

22 FTA 유관기관 탐방: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수출입 데이터는 ‘협상’ 무기, 관세 노하우는 ‘집행’ 도구

24 중소기업 천하: 뉴랩  
내수서 저가 경쟁 그만, 미국서 품질로 승부

26 원산지관리사: 이상윤 페이퍼코리아 구매사업부 과장  
FTA 시대 필수 자격증, 사후검증도 문제 없어요

27 지상중계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실무전문가과정  
서비스협정 강의에 ‘귀 쫓긋’...학구열 뜨거웠다

28 지상중계2: 한·미 FTA 1주년 기념, FTA 원산지 사후검증 세미나  
“원산지 담당자 자주 바뀌면 정밀 검증 가능성 커”

스페셜 리포트

동아시아·중남미 FTA 긴급 점검

30 급변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운명은  
한국, TPP와 RCEP 사이 균형 갖춰야

32 한·칠레 FTA 발효 9주년의 성과와 의미  
중남미 교역량 ‘쑥쑥’...한태평양 교두보 역할 ‘톡톡’

FTA 아카데미

34 알기 쉬운 FTA: 왜 FTA를 추진해야 하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가로 양국 모두에 이익

FTA 뉴스

36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등

컬처 윈도우

38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의 힘

별별랭킹

40 2012년 국가별 무역 베스트 10



32



한·미 FTA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발효 당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미 FTA를 포함한 각국·경제권과의 FTA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경제를 든든히 지킨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에서 한·미 FTA발효에 대해 양국 통상 관계를 한층 더 개선시켰다고 평가한 것처럼 한·미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수입 소비재 가격인하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가 컸던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피해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국과의 FTA 실무 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경제적 효과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르는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기적인 수출입 통계만을 근거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초에 한·미 FTA로부터 가장 많이 기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나타날 생산성 증대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가시화 되려면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각종 후진적 법·제도를 개혁하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과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한·미 FTA 후속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미 FTA가 대미 수출 증대라는 단편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 좋은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운 관세평가분류원장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미 FTA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효 초기 단계로서 '탐색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FTA 활용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제원산지정보원도 불법 특혜수혜를 차단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과 원산지관리사 양성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원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김두기 국제원산지정보원장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미 FTA,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미 FTA 발효 1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미 FTA는 지난 1년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무역 환경이 어렵지만, 앞으로도 한·미 FTA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무역 현장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땀 흘린 우리 무역업체에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우리 기업은 지금 WTO 무역체제에서 FTA 무역체제로 세계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FTA 활용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국내외 거래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입니다. FTA 활용 역량은 수출기업-생산기업-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의 협업과 정보 공유 없이는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한·미 FTA 활용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태성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2월 말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69.6%로 괄목할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확한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등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관세사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미국 세관 당국의 FTA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현 한국관세사회장

한·미 FTA가 첫발을 뒀습니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와 수출부진을 극복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서, FTA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고생하신 한·미 FTA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자 FTA, 복합 FTA도 대비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마케팅·바이어 확보·계약·금융·물류 등 FTA 가치사슬을 지원하고, 서비스·지식·문화·융복합 분야 등의 FTA 활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민관이 똬뚝 뭉쳐 FTA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 한·미 FTA 발효 1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출 버팀목 효과 ‘톡톡’... 선점 효과 극대화해야

글 |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요 통상정책으로 집중해 왔던 FTA 성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FTA가 수출 확대와 경기 침체 극복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남다르다.

물론, 한·미 FTA의 성과를 단정 짓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무척 짧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FTA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것은 일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 한·미 FTA,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

한·미 FTA 역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발효 후 1년간(2012.3.15~2013.2.28)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이 2.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이다. 수입의 경우 축산물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9.1%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도 고무적이었다. 2012년 1분기 미국의 대미 투자는 8.7%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인 2012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0.5%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FTA 확대와 함께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순풍이 불고 있다. 2012년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전년 대비 18.9% 늘어난 162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로 인해 외국인 투자처로서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린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활용과 효과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복잡해지고 향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기반을 바탕으로 FTA 선점효과 극대화가 긴요한 시점이다.”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 가운데에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내 생산 기판을 우리나라로 옮기는 기업도 있었다.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미 FTA 활용 등을 이유로 국내 유턴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한·미 FTA를 계기로 대미 수출을 크게 늘린 산업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섬유, 신발, 먹거리(1차 상품과 가공품), 약기, 가구, 조명, 운동용품, 문구, 미용 등을 들 수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들이다. 정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11개월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3.1% 증가하며 전체 대미 수출 증가율(2.7%)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 상위 50대 품목 가운데 38개 품목이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 FTA 활용률, 소비자 체감 제고 등 과제

이처럼 무역·투자 등의 측면에서 한·미 FTA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FTA 활용률을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역위원회(USITC)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직후인 2012년 4월 58.3%였던 활용률은 2013년 1월 현재 73.3%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2년 4월~2013년 1월 누적 기준으로는 66.7%이다.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

또한 활용률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원산지 검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원산지 검증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지속해서 펼칠 필요가 있다. 업계도 FTA 시대에 걸맞게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 대비를 염두에 두고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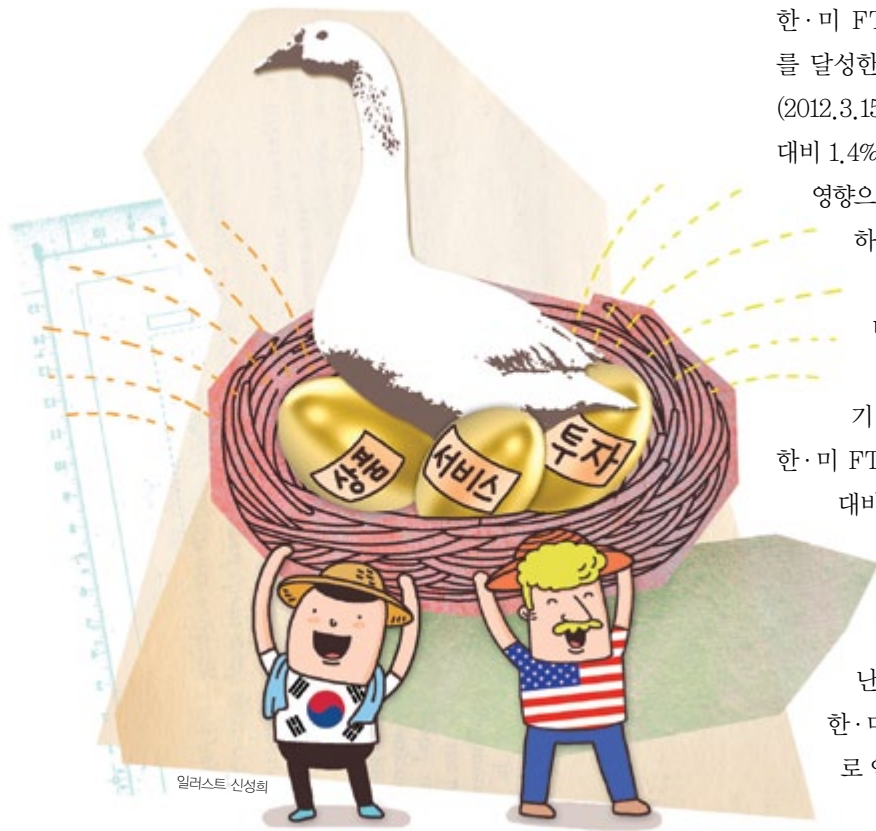
동시에 국민들이 FTA 관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체리, 오렌지, 아보카도, 와인 등의 경우 큰 폭의 가격인하로 국민들이 FTA 혜택을 누렸지만,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수입 가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왜곡된 유통구조와 경쟁 구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 FTA 경쟁 심화, 선점 효과 극대화가 관건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2기에도 그 동안 추진해왔던 ‘국가수출구상(NEI)’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출범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조속한 타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올 상반기 중 협상 개시를 추진 중인 TTIP 협상은 미국과 EU간의 FTA 협상으로, 양측이 세계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 무역의 새로운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TPP 협상도 일본을 포함하여 12개 국가가 참여하여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TPP의 경우 일본의 참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일본 FTA’ 추진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복잡해지고 향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세계 최대시장을 내수시장화하기 위한 발판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기반을 바탕으로 FTA 선점효과 극대화가 긴요한 시점이다. [E]



일러스트 신성희

미국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시장으로, 세계 경제의 약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국으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2012년 기준). 미국의 연간 수입량은 2012년 2조2,753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자랑한다. 수출량 1조5,464억 달러까지 합친 총 교역 규모는 3억8,218억 달러로 역시 단일국으로서는 가장 크다. 미국은 한국의 3위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2012년 한국과 미국의 교역 규모는 1,019억 달러로 중국 2,151억 달러, 일본 1,032억 달러에 이어 3위 교역 상대국이다. 수출 기준으로는 2위이며, 수입 기준으로는 3위 교역 상대국이다.

#### 대미 수출 1.4% 증가, 혜택 품목은 10.4% 증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1년 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1.4%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량(대세계 수출)이 2.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FTA 혜택 품목(관세 인하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10.4%에 달했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10.9%), 석유제품(29.3%) 등의 품목이 크게 기여했다.

자동차 부품과 석유제품이 대미 수출 증가의 견인차가 된 것과는 달리 무선통신기기(-35.2%)와 반도체(-7.7%) 등 FTA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3.6% 감소했다. 하지만 FTA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자동차는 비혜택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16.9% 증가했다.

한편, 체결 당시의 우려와 달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1년 간 대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하며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했다. 이는 FTA 비혜택 품목 대부분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제품 등 FTA 비혜택

#### 한·미 FTA 발효 후 1년 간 성적표

## 대미 수출·무역수지 증가...활용률 더 높여야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9.1% 감소했고, 대미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초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 분야의 경우 오히려 대미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었다. 또한 한·미 FTA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나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 | 신규섭 기자



임희진 작가

품목군 대부분의 수입이 20.1%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FTA 수입관세가 8%에서 4%로 낮아진 자동차 등 FTA 혜택품목군 수입은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172억 달러로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39.1%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무역 수지 353억 달러의 48.7%가 대미 무역에서 거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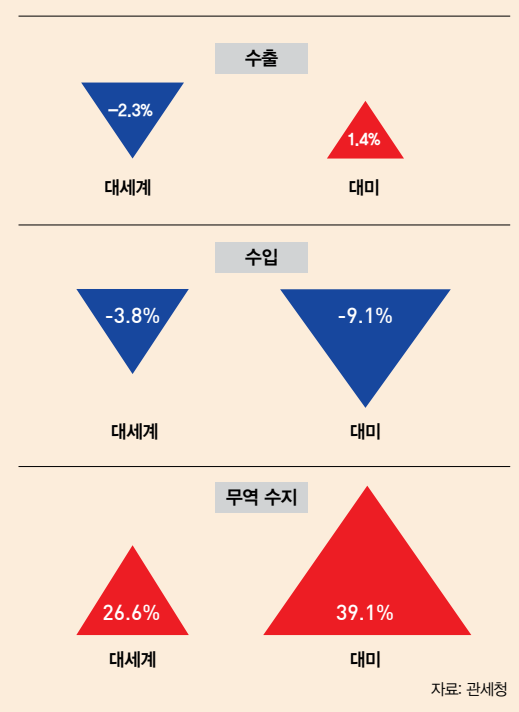
또한 2월 말의 한·미 FTA 활용률은 수출 69.6%, 수입 62.1%로 집계됐다. 발효 후 100일이었던 시점에서 각각 59.2%, 51.4%에 머무르던 것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한·ASEAN FTA(3.5%), 한·인도 CEPA(17.7%)의 발효 1년 후 활용률보다는 월등히 높지만 한·EU FTA의 발효 1년 후 활용률이었던 79.8%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아, 한·미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농업 분야, 수출 늘고 수입 줄어

한·미 FTA 체결 이후 가장 우려됐던 농업 분야의 피해는 기우(杞憂)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후 1년 간 대미 농식품 수출은 6억5,000만 달러로 7% 증가한 반면, 수입은 59억4,000만 달러로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미 농식품 수입 감소는 옥수수(-69.9%), 쇠고기(-15.6%), 돼지고기(-27.6%), 닭고기(-38.1%)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북미 기상이변에 따른 미국 내 곡물생산 및 수출 감소와 국내 공급 증대 등으로 축산물 수입이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렌지·체리 등 미국산 과일 수입은 증가했으나, 계절 관세 및 국내 공급 감소 등으로 가격은 비교적 안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즉시철폐 품목인 김(38.9%), 음료(34.2%), 김치(28.7%), 라면(11.7%) 등의 농식품은 수출 증가를 거뒀다.

한·미 FTA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의 21억2,000만 달러 대비 113.6% 증가한

#### 한·미 FTA 발효 후 1년의 성과 기간: 2012.3.15~2013.2.28



한·미 FTA 발효 후 1년 간 한국의 전체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미 수출은 증가했다. 수입 또한 대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대미 무역수지는 전체 무역수지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억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억 달러 증액됐는데, 이 중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이 절반 이상이었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는 17억7,100만 달러(88.6%), 서비스업은 22억4,100만 달러(90.6%)로 모두 증가했으며, 이중 신규 투자는 27억2,700만 달러로 150.5% 급증했다. 인수합병(M&A)형 투자(3억3,900만 달러), 217.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설립 등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41억9,000만 달러)도 108.1% 증가하며 FTA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미 FTA로 수출에 날개단 중소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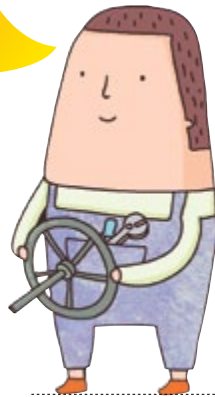
## 가격경쟁력 커지자, 바이어들 줄었다

### 한·EU FTA 학습효과로 한·미 FTA도 수월하게 활용

1993년 설립된 동하정밀(충북 진천)은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전문 제조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368억 원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대미 수출은 366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80%에 달한다. 한·미 FTA로 동하정밀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미국에서 해외 유수의 자동차부품 생산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한·미 FTA 발효로 2.5%이던 관세가 즉시철폐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2011년 148만 달러이던 대미 수출액은 2012년 366만 달러로 150%가량 증가했다. 신제품 공급계약도 이어지면서 기존 바이어들의 수주 물량도 늘어나 올해 초 2,000만 달러(5년 간)의 주문량을 계약할 수 있었다.

동하정밀은 이미 2011년 체코 바이어의 요청으로 한·EU FTA 인증수출자 등록을 완료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어, 이미 FTA 활용 노하우를 습득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한·미 FTA는 비교적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지금은 FTA 수시검증에 대비해 서류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바이어로부터 신규제품에 대한 문의나 주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동하정밀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해외입찰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

동하정밀



### 3% 관세 철폐로 주문 의뢰 쏟아져...대미 수출 350% 증가

1981년 설립된 우성밸브(부산)는 체크밸브만을 전문으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선점했고, 2000년 이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시행착오 끝에 2004년 프랑스 시장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아람코 공급업체) 등의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저가 제품의 공략으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해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1년 중소기업청의 수출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인증수출자 자격증을 받고 FTA 활용 수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의 거래는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거래물량은 진공펌프 제조업체 1곳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미 FTA라는 큰 기회가 찾아왔다. 이미 한·EU FTA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 우성밸브는 한·미 FTA 교육에도 열심히 참가했다.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의 미국 수출 관세 3%가 즉시철폐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선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제품 견적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2년 8월 미국 내 농수산물 가공공장 플랜트 신축현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성밸브는 발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물량을 납품했다. 2011년 17만 달러이던 우성밸브의 미국 수출액은 2012년 77만 달러로 350% 무려 증가했다.

우성밸브



한·미 FTA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을 새로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관세철폐로 저렴해진 가격도 매력적이지만, FTA로 양국이 경제파트너가 되면서 한국 중소기업들에게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 또한 이런 기회를 맞아 분주하게 새로운 수출길을 모색하면서 'FTA 대박'을 꿈꾸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FTA를 활용하고 있을까?

글 | 이진원 기자

### 의료기 시장 문턱 높지만, FTA로 새로운 기회 열려

2008년 설립된 하스(강릉과학산업단지)는 인공치아용 세라믹 재료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15억 원이지만, 2011년 매출(7억5,000만 원) 대비 2배 늘어나며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력 제품인 인공치아용 치과재료의 경우 한·미 FTA로 관세가 즉시철폐된 데다, 기존 경쟁사 제품과는 다른 생산공정을 통해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었고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인공치아용 세라믹 소재는 의료기기에 해당돼 제조·판매하기 전에 의료기기제조업(업체) 허가, GMP 인증, 품목별 허가, CE·FDA 등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는 데 수 년 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시장 진입 후 임상 적용 결과의 피드백이 오래 걸려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스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수출역량강화사업 및 해외규격인증사업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했고, 해외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바이어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전시회(IDS, IAPD 등)를 통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 나갔다. 이런 노력과 한·미 FTA의 관세철폐를 통해 대미 수출은 2011년 4만 3,000달러에서 2012년 87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하스



### '단발성' 수출이 한·미 FTA 후 '지속적' 수출로 바뀌어

청해물산(경남 사천)은 2002년 설립된 수산물 가공업체로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와 10년 넘게 거래하며 유통망을 확장해온 업체로, 저온냉동기법 등 고유기술을 보유하며 수산물 가공업체로는 비교적 큰 6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청해물산의 2011년 매출액은 66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2년 4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유사 업체의 난립과 출혈경쟁으로 시장환경이 악화된 탓이다. 이에 수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마침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 4~5%가 철폐되자, 그간 값싼 중국산에 가격경쟁력이 뒤져 진출하지 못하던 미국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수년 전 처음 미국 진출을 시도한 청해물산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바이어 상담회 참가를 통해 기초를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FDA 시설 등록, HACCP 인증 및 원산지 이력 추적 등 체계화된 시설 인증 및 문서를 구비했고, 무역전문인력을 보강해 외국어 홈페이지 및 브로셔·영문포장지 제작 등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청해물산의 미국 수출은 2011년 2,000달러에서 2012년 18만5,000달러로 약 90배 이상 증가했다. 

청해물산



한·미 FTA로 저렴해진 수입물가

## 선택권 넓어지고, 가격 싸지고... 소비자 혜택 늘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은 그간 맛보지 못했던 미국산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국내 이상기후로 국내산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미국산 과일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었다. 공산품의 가격도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걱정을 덜어주었다.

글 | 이현주 기자 사진 | 한국경제신문



한·미 FTA 발효 1주년이 갓 지난 3월 27일 M마트 서울역점 신선식품코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된 과일은 오렌지였다. 3월 들어 계절관세가 풀린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를 주부들이 분주하게 비닐백에 담고 있었다. 개당 990원인 오렌지를 13~14개가 들어가는 비닐백에 몇 개를 담은 1만 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오렌지는 국내 굴 출하기인 9월~이듬해 2월까지

는 기존 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3~8월까지 는 기존 관세 50%가 30%로 인하(발효 1년차)됐고, 매년 5%씩 낮아져 발효 7년차에 무관세가 된다. 올해는 발효 2년차로 오렌지 관세는 현재 25%다. 지난해보다 더 관세가 낮아진 것이다. 다만 지난해 수입자들이 소비자 수요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면서 큰 폭으로 가격이 낮아진 것에 비해 현재는 가격이 조금 오른 편이지만, 한두 달 후 여름 성수기가 되면서 수입이 본격

화되면 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뒤인 3월 28일 M마트 서울역점은 작은 크기의 오렌지 20개들이 박스를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굴 출하가 마무리되고 여름 과일이 나오기 직전인 3~4월은 딸기가 제철 과일이었지만, 최근 딸기 가격이 오르면서 마땅히 저렴한 먹을거리가 없는 마당에, 오렌지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관세 24%가 즉시철폐된 체리의 경우 가격이 40% 이상 저렴해지면서, 지난해 수입량은 전년(2011년) 대비 90%가 늘어났다. 체리는 계절 과일로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여름이 시작되면서 다시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 자몽·레몬·아몬드 등 수입과일 저렴해져







현재 판매되는 수입과일 중에서는 자몽·레몬·아몬드가 한·미 FTA 발효 직전보다 저렴해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한·미 FTA 발효 직전과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관세인하 품목을 조사한 결과 관세 30%가 18%로 인하된 자몽(1개)은 1,880

원에서 1,800원으로 평균 4.3% 저렴해졌고, 관세 30%가 즉시철폐된 레몬(1개)은 900원에서 830원으로 7.8% 가격이 인하됐다. 관세 8%가 즉시철폐된 아몬드(180g)는 4,900원에서 4,300원으로 12.3% 인하됐다.

공산품의 경우 오렌지주스(웰치스, 1리터)는 관세 54%가 즉시철폐되면서 4,050원에서 3,700원으로 8.6% 인하되었고, 포도주스(웰치스, 1리터)는 관세 45%가 즉시철폐되면서 4,050원에서 3,700원으로 8.6% 싸졌다. 관세 15%가 즉시철폐된 와인(로버트 몬다비, 750ml)은 7만8,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11.5% 저렴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는 수입가격에 적용되고, 소비자가격은 유통비용 및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인하폭은 관세 인하폭보다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 8%가 4%로 낮아진 미국산 자동차도 가격이 내려갔다.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자동차의 캠리는 한·미 FTA 발효 전 3,490만 원이었지만, 2월말 현재 3,370만 원으로 3.4%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 한·미 FTA 발효 1년 간의 수입물가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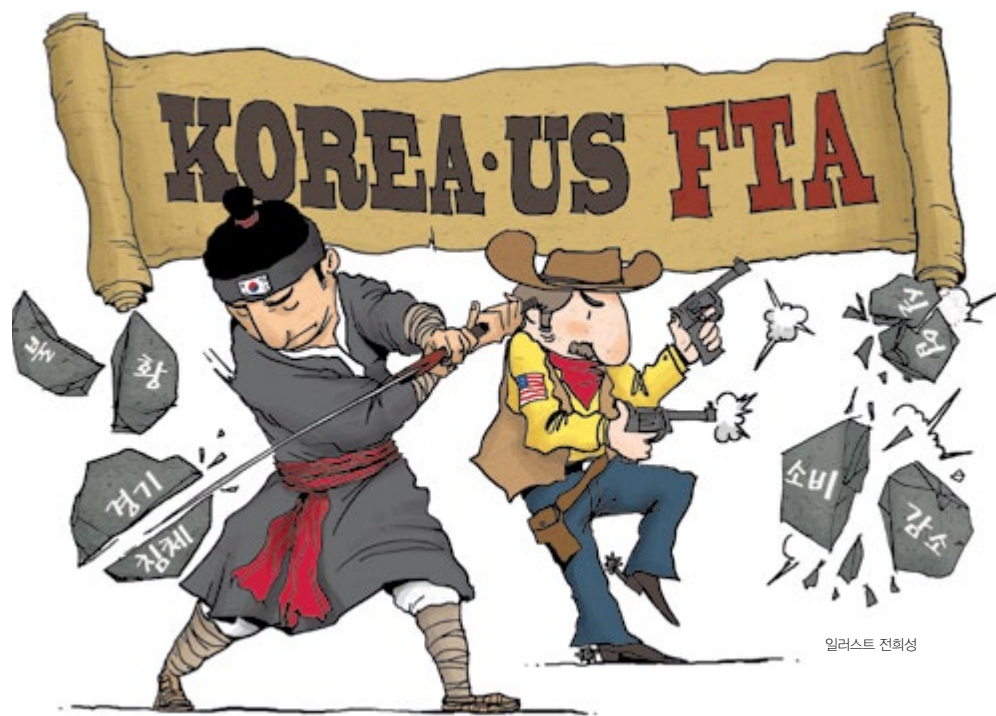
<b>자몽 (1개)</b>  발효 전 (2012. 3. 15 이전) 1,880원 -4.3% 관세인하폭 30% → 18% 현재 (2013. 2.28) 1,800원	<b>레몬 (1개)</b>  발효 전 (2012. 3. 15 이전) 900원 -7.8% 관세인하폭 30% → 0% 현재 (2013. 2.28) 830원
<b>오렌지주스 (1000ml)</b>  발효 전 (2012. 3. 15 이전) 4,050원 -8.6% 관세인하폭 54% → 0% 현재 (2013. 2.28) 3,700원	<b>포도주스 (1000ml)</b>  발효 전 (2012. 3. 15 이전) 4,050원 -8.6% 관세인하폭 45% → 0% 현재 (2013. 2.28) 3,700원
<b>와인 (750ml)</b>  발효 전 (2012. 3. 15 이전) 7만8,000원 -11.5% 관세인하폭 15% → 0% 현재 (2013. 2.28) 6만9,000원	<b>아몬드 (180g)</b>  발효 전 (2012. 3. 15 이전) 4,900원 -12.3% 관세인하폭 8% → 0% 현재 (2013. 2.28) 4,300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미 FTA 발효 1년 간 무역통계 수치로 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FTA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해득실로 따지면 한국이 유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체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투자 등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글 | 장진모 한국경제 위싱턴 특파원



일러스트 전희성

미국에서 바라 본 한·미 FTA

## 제조업·서비스 수출 증가...장기적 효과 '기대'

“한·미 FTA를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FTA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1주년 사흘 전인 3월 12일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에서 업계 대표와 정부 부처 기관장으로 구성된 대통령자문기구인 수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과의 FTA를 거론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확대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콜롬비아, 파나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과의 FTA가 비준되고 나서 우리 정부는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48% 늘어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대했던 대로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익을 가져왔다”며 ‘윈윈(win-win) 협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증가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제조업 수출이 1.3% 늘어났다”고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48%나 증가했고 과일, 견과류, 주스, 와인 등 농산물 수출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3월 19일 미국 코리아 소사이

어티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해 “교통·전자 장비, 화학, 제약 분야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늘었으며 서비스 수출은 2011년에 비해 9% 증가했다”고 전했다. FTA가 결코 밀진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커틀러 대표보는 또 “2012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의 한국 내 판매는 18%, 전체 자동차 산업관련 품목의 한국 수출은 48%나 증가했다. 이는 관세·비관세 영역의 문제가 잘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입이 대폭 늘어나 한국 농가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한국 내의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도 늘어났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산 농산물의 미국 수출도 10%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농업 경쟁력이 너무 높아 FTA를 체결하면 미국에 어떤 농산물도 팔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미 정부와 달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3월 19일 USTR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무역 어젠다’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세로드 브라운(민주당·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이래 미국은 만성적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FTA가 단적인 사례다. 한국 상대로 수출이 물론 늘었지만 수입은 더 늘었다”며 “자동차 수입은 FTA 이전보다 거의 20억 달러 증가했다. 전체 무역 적자 규모도 지난해 커졌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카퍼(민주당·델라웨어주) 상원의원도 “델라웨어주에서는 GM과 크라이슬러 공장이 없어졌다. 한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자동차 수입은 50만 대에 달한 반면 수출은 5,000대에 그쳤는데 지금 그 비율에 변화가 있느냐”고 따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마란티스 USTR 대표대행은 “다른 좋은 통계도 많다. 체리는 88%, 오렌지 주스는 83% 더 팔려나갔다. 전체 공산품 수출은 1.3%,

서비스는 8% 증가했고 지금도 늘고 있다”며 의원들의 추궁을 넘어갔다.

### “한국 투자 늘리겠다”...미국 업계는 긍정적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토마스 도노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은 “100만 개의 미국 수출기업 가운데 97%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들이 미국 상품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중소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한국시장의 접근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시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메탈다인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3개국, 25개 거점을 두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의 평택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현대차 국내 공장 등에 납품하고, 일부는 미국 현대차의 앨라배마 공장으로 수출한다. 이 회사의 토마스 아마토 사장은 “한국은 메탈다인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미 FTA 효과를 지금 당장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의 무역통계만 놓고 어느 한 쪽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분야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소장은 “FTA의 영향과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투자 등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FTA 체결 이후 변화된 무역정책이 산업 전반에 반영되는데 시간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 체결된 미국과 칠레의 FTA 영향이 본격화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였다고 버그스텐 소장은 덧붙였다. [E]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 세터’...투자처로도 매력적”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기업들의 단체다. 에이미 잭슨(Amy Jackson) 대표는 1990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한국 및 아시아와 항공우주 분야 협력을 주도한 바 있으며, 1998년부터는 미국 무역대표부 부차관보로 일본과 한국 총괄을 맡으며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2009년부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맡고 있다. 글 | 우종국 기자

**한·미 FTA 발효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업계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기업들은 모두 한·미 FTA 발효를 환영했습니다. 관세와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역 및 투자가 늘어날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1년이 갓 지나긴 했지만, 예견한 대로 양국의 수출 기회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쌍방의 무역 통계를 보면 양국 모두 관세 양허 품목이 비양허 품목보다 빠르게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양국 소비자들은 수입품의 가격이 더 싸지

면서 소비를 늘리게 되고 이는 양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수출의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양국의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비즈니스의 성공 스토리들이 수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은 아시아 시장 진입을 위한 중요한 ‘테스트 베드(test-bed)’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 높은 수준의 기술과 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치 주변국들의 ‘트렌드 세터(trend-setter)’ 국가처럼 보입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에서의 성

“한국은 의욕적인 자유무역 전략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 투명하고 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은 아시아 어디에서 경쟁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미국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 유럽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EU FTA가 8개월 앞서 발효되었지만, 한·미 FTA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유럽 기업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과 미국의 선도 기업들이 상호 윈·윈하는 파트너십을 점점 더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FTA 전략에 힘입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을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LG화학이 미국 제네럴 모터스(GM)와 팀을 이뤄 전기차 ‘볼트’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 것들입니다.

**한국의 FTA 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직접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이 맺은 FTA 체결국들과의 접근성을 위해 점점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의욕적인 자유무역 전략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 투명하고 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양허 범위와 구체적 권리와 의무 면에서 FTA의 최고 모범으로 꼽힙니다. FTA는 지적재산의 권리 보호에 엄중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의 개선도 요구되는데, 이는 자국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 및 신규 투자를 추진하는 데 있어 견고한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었습니까?**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3억7,000만 달러(산업통상자원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의 22.6%에 달하며 전년 대비 54.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는 미국으로부터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에게도 투자의 매력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한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57.8%가 늘어난 10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적하듯 한·미 FTA와 한·EU FTA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갓 출범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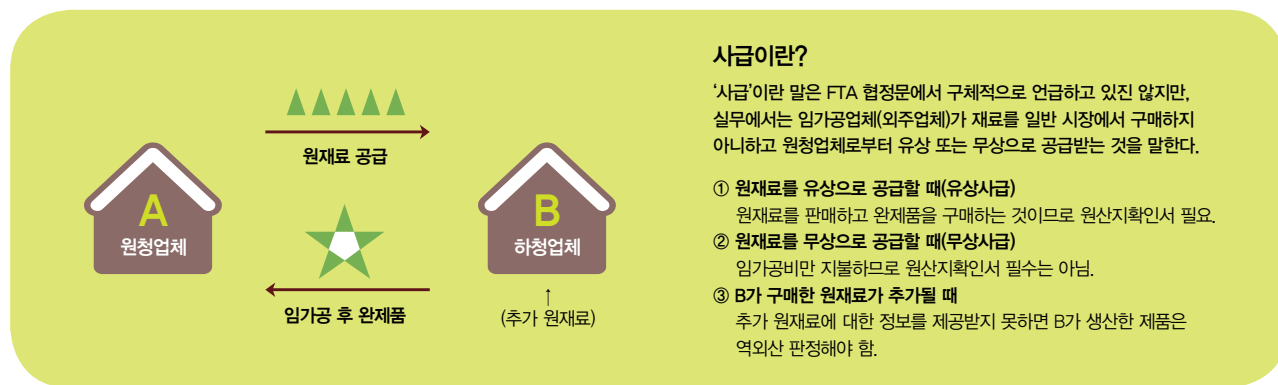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새 정부가 혁신과 연구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지지합니다.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혁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적재산의 보호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호받을 때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자금을 쏟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개발 센터를 세우고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를 맺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겁니다. [圖]

‘사급’의 원산지 판정 시 주의점

## 사급 외의 원재료 석일 경우 주의해야

FTA 무역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 애매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주임가공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경우 판정기준의 불명확함으로 사후검증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사급’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정리하며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 |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 advice 1

#### 유상사급 시 원산지확인서가 없다면?

유상사급은 원청업체의 바이파워로 인해 외주업체가 일반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매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 경우는 외주업체가 시장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큰 틀의 제조공정과 자재내역서(BOM) 등을 가지고 공정의 일부분을 외주업체에 맡기게 된다.

사급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주업체가 원산지 판정을 스스로 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원청업체에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과 같게 된다. 하지만 유상사급의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외주업체가 스스로 발급하지 못하면 해당 원재료는 역외산으로 판정해야 한다.

### advice 2

#### 무상사급 시 원산지확인서가 필수는 아냐

혹자는 협정에 따라 무상사급의 경우에도 임가공업체로부터 무조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역내산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급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봐야한다. 무상사급의 경우 특정의 가공공정을 갖고 있는 외주업체가 완제품 생산업체의 손과 발의 역할로서, 주어진 원료를 가지고 주문된 내용에 따라 가공만 하여 만들어진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외주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와 순수 임가공비를 원산지 서류에 표시해도 되고, 유상사급처럼 외주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발급 받을 수도 있다.

### advice 3

#### 사급 외의 원재료가 추가될 때

임가공업체가 ①공급받은 원자재 이외에 필요에 의해 ②직접 구입한 원재료도 있을 수 있다. ①의 경우 원부자재와 임가공비를 당연히 원청업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임가공비를 경비로 처리하게 되므로 역내부가가치율 계산 시 직접법보다는 공제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문제는 ②의 경우다. 이때는 외주업체로부터 원재료 구입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생산정보를 외주업체로부터 받지 못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②의 물품은 역외산으로 계산되어 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가공계약 시 적어도 순수 임가공비와 임가공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원재료는 나누어 계약을 해야 회사가 원산지 판정을 역내산으로 하는 데 있어 좀 더 유리해 질 수 있다.

## 한국의 수출 경쟁력, FTA로 ‘파워 업’

안종만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구FTA활용지원센터

## FTA 교역 비중 높아...맞춤형 지원 ‘눈에 띄네’

대구는 일찍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할 정도로 양질의 인력과 제조업의 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원가 해보자”는 의욕만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강하다. 특히 최근 타 지역 대비 FTA 체결국 교역액이 크게 늘면서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글 | 우종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2012년 대구의 FTA 체결국 교역규모는 4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1.1%와 비교하면 큰 수치지요. 대구의 수출액 중에서 FTA 체결국 비중 또한 39.2%로 전국 평균 34.8%보다 높습니다. FTA활용을 극대화할 경우 타 지역보다 효과가 크다는 뜻이지요.” 우동주 대구FTA활용지원센터(대구센터) 센터장의 말이다.

동대구역 인근의 대구상공회의소에 자리한 대구센터(2011년 3월 개소)는 대구만의 독특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대구센터가 지난해 11월 제작한 ‘주요 섬유제품 미국 품목번호(HS CODE) 해설서: 54류, 55류, 60류’는 전국의 FTA 유관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섬유류



는 미국의 민감 품목으로 ‘원사 기준(실부터 역내 제작해야 원산지 인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후검증도 대부분 섬유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FTA 활용이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다. ‘섬유의 도시’이다 보니 대구센터가 나서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올해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하고 있다. 기계공업협동조합, 직물공업협동조합, 안경광학협동조합 등 연초에 집중된 산업별 조합 모임에 찾아가 FTA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CEO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0개의 조합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다.

대구센터가 직접 제작한 ‘주요 섬유제품 미국 품목번호(HS CODE) 해설서’와 ‘알기 쉬운 FTA’.

### 대구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 사례

여성 블라우스  
수출업체 Y사

16% 관세 즉시철폐...  
미국 바이어 물량 확대 나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에 위치한 Y사는 외주 제작한 여성블라우스(HS코드: 6104.43)의 수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연 매출액 40억~50억 원, 직원 2명 규모로 영세하다 보니 그간 FTA 활용 수출 경험이 없고 원산지를 전담할 인력을 따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당연히 협력업체 제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 인하 여부를 대구FTA활용지원센터에 문의했다.

컨설팅 결과 Y사 제품의 원산지 규정은 ‘세번변경기준(2단위변경)+가공공정기준’으로 국내산 원사를 사용하고 봉제, 가공 등 모든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 역내산 판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관건은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 것이었다. 대구센터는 해당품목 및 재료들의 HS코드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고, 수입국의 HS코드도 검증했다. 또한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아 Y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보관 등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했다.

해당 품목은 한·미 FTA 발효로 16%의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품목으로, Y사는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에 1,156벌(9만2,480달러)을 수출해 16%의 관세에 해당하는 1만4,797달러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 바이어 또한 구매선을 기존 동남아시아에서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한국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함과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과기  
수출업체 S사

수입국 HS코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S사는 지난해 4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태국에 여과기(Screen Basket) 2만7,190달러치를 수출하기 위해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태국 세관에 제출했다. 해당 HS코드로는 한·아세안 FTA로 3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었다. 그러나 태국 세관은 ‘해당 제품의 HS코드는 8439.99가 아니라 8421.90이므로 S사에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S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관세 30%를 적용하여 통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S사는 대구FTA활용지원센터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HS코드를 변경할 경우 기존 HS코드와 변경된 HS코드의 원산지기준이 동일해야 한다.

다행히 두 HS코드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로 동일해 S사는 최초 수출 1개월 보름 만에 원산지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통관이 지연되는 동안 창고료 등의 비용이 계속 지출됐고, 납기 지연으로 바이어와의 신뢰관계가 악화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대구센터의 서석민 팀장은 “FTA 활용 시 자사 제품이 상대국에서 어떤 세번으로 분류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센터는 이 사례를 계기로 교육·상담·컨설팅 때 수입국 HS코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우동주 대구FTA활용지원센터장 “중소기업 CEO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우동주 센터장은 중소기업에서 원산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최고경영자(CEO)의 이해와 의지 부족으로 꼽았다. 특히 원산지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이유를 “원산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업무가 있는데다 원산지 업무를 덧붙이다 보니 업무가 과중해짐과 동시에 사후검증이라는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그만 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 “원산지 담당자 1명만이 아니라, 구매·회계·무역·전산 등 모든 부서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이는 그 부서들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를 잘

알아야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CEO 대상 설명회나 교육을 하려고 해도 CEO가 직접 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산업별 조합 총회가 있으면 대구센터가 직접 찾아가 시간을 할애 받아 설명회를 열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도 강화하고 있는데, 단체 설명회에는 원산지 담당자만 참석할 뿐 모든 직원이 참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구매부터 회계까지 전 부서의 이해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회사로 찾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FTA 교육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



FTA 활용의 콘트롤 타워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 수출입 데이터는 ‘협상’ 무기, 관세 노하우는 ‘집행’ 도구

FTA를 체결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관세청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수출입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관세청이 축적한 방대한 수출입 데이터가 없다면 어떤 통상 협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FTA 활용은 관세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행정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관세청 내에서 이런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FTA집행기획관실이다.

글 | 우중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의 전신은 2007년 4월 신설된 자유무역협정이행과였다. 2010년까지도 관세청 내 전담 기관은 1개 팀 10명 규모로 당시까지의 명칭은 자유무역 이행팀, FTA이행대책단 등이었다. 그러나 한·EU FTA 발효(2011년 7월)를 앞둔 2011년 4월 1국(FTA집행기획관실) 2과(FTA집행기획담당관실,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및 본부세관(5과) 체제로 개편됐고, 2012년 4월 FTA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되며 현재는 1국 3과 및 본부세관(8과+2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백형민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사무관은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FTA 정책 중심이 ‘협상’에서

‘집행’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인증수출자 지정·관리, 원산지검증, 불법우회수입 방지 및 새로운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해 4월 ‘1국 3과+본부세관 FTA과’로 확대

FTA집행기획담당관실(과)은 국내 기업들이 FTA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곳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및 FTA 통계분석(활용률) 등 실질적인 FTA 집행기관이다.

원산지지원담당관실(과)은 원산지 검증을 기획 및 지휘하


는 곳이다.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이 크다 보니 원산지 위변조 등의 유혹이 클 수 있고, 이런 것을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원산지검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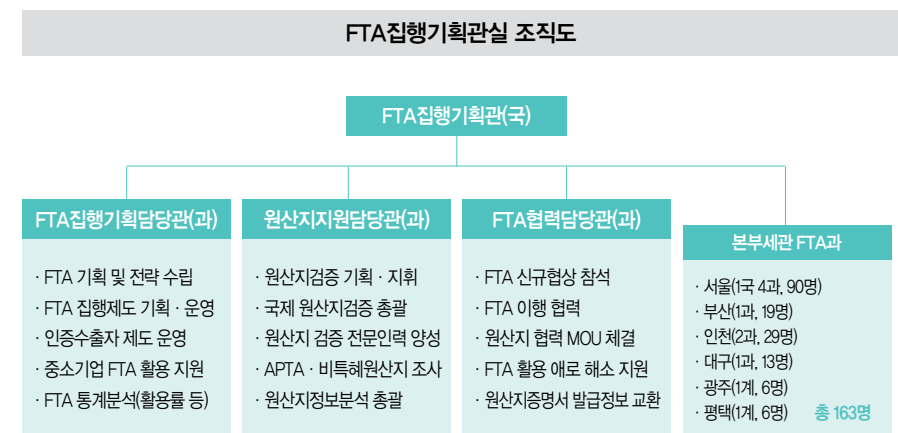
가장 최근 만들어진 FTA협력담당관실(과)은 FTA 신규협상에 참석하고, 이미 발효된 FTA의 이행과 관련해 상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 상대국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산지 판정의 경우 나라별로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양국 세관 차원에서 미리 이런 차이를 해소해 국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상대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의 본부세관 내에는 각각 자유무역협정과를 통해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세관의 경우 4개 과, 인천세관은 2개 과를 두고 있다. 부산세관과 대구세관은 각각 1개 과, 광주세관과 평택세관(본청직할)은 1개 계(FTA계)를 두고 있다.

### 유망 수출 강소기업 500개 육성 사업 시작

올해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은 ‘FTA SG 5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예정 포함)하는 기업들 중 FTA 활용도가 낮은 유망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해, 적극적인 FTA 활용을 통해 세계화에 성공한 강소기업(Small Giants)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백형민 사무관은 “기존에 유관 기관이 해오던 비슷비슷한 컨설팅이 FTA 활용 인큐베이팅(육성)에 그쳤다면,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증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토탈 컨설팅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해외 현장해결팀을 신설해 FTA 협정 상대국의 관세감축 이행 지연 및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애로 해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경제권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사후검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대국의 검증 및 세관 처리절차를 명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자료: 관세청

### mini interview



#### 박철구 FTA집행기획관실 국장 “사후검증 문제 없도록 지원할 것”

박철구 국장은 지난해 2월부터 FTA집행기획관실을 총괄하고 있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은 박 국장은 “FTA를 골프에 비유하자면, 협상은 드라이버이고 집행은 퍼팅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이버가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점수를 내는 것은 퍼팅이기 때문”이라며 FTA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Q 최근 FTA집행기획관실이 주력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FTA 초창기는 기업들이 FTA를 잘 모르니까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2011~2102년은 확산기로 본격적인 FTA 활용 노하우를 키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해로, 특히 사후검증에 대비해 기업들이 FTA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Q 수입국 바이어가 사후검증 때문에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가 원가 정보를 알게 되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국 세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세관직원은 관세 행정 목적으로 얻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Q 실제로 FTA로 큰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잘 된다’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FTA 활용 노하우를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 사례를 더욱 많이 알려야 하는 것이 저희 FTA집행기획관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FTA로 미국·유럽 진출 기회 맞은 **뉴랩**

## 내수서 저가 경쟁 그만, 미국서 품질로 승부

한국이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으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며 큰 시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堂堂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뉴랩은 한·미 FTA, 한·EU FTA 발효 이후 내수의 한계를 벗어나 수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 | 우종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만들고 이를 생각해 비닐 원단을 만든다. 이를 재단하면 뉴랩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되는 것이다. 제조공정이 간단하다 보니 2~3명만 있어도 생산이 가능하고 전국에 영세업체들만도 수두룩하다. 눈으로 품질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다 보니 저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랩·롤백·위생장갑·호일 등 식품포장재는 철저하게 저부가가치 시장이다. 그러나 뉴랩(대표 이종권·사진)은 친환경 제품 개발과 수출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때마침 한·EU FTA, 한·미 FTA 발효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며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 저가 시장 벗어나 신기술로 승부

이 때문에 뉴랩은 일반 소매시장 대신 대형마트 납품에 주력했다. 대형마트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과 자금력 등의 비즈니스적인 대응은 영세 업체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뉴랩은 현재 코스트코코리아,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유통(하나로클럽), 이랜드리테일, 메가마트, C&U(편의점), 미니스톱(편의점) 등에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2년 매출은 60억 원 규모로, 직원 수는 13명이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다 2006년 창업한 이 대표에게는 이 제품들이 단순히 저부가가치 시장만은 아니었다. 1회용 제품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친환경 제품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 분야는 16개 정부전략 산업에 포함돼 있고, 저희는 바이오소재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

니다. 일반 제품은 1회용 저가제품이지만, 바이오메스 등의 소재를 이용해 친환경제품을 만들면 고부가가치 제품이 됩니다. 최근 환경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기술을 가진 기업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환경 기준은 올해 2월 25일 개정된 환경표지인증기준 고시를 말하는데, 기존 고시에서는 소맥·옥수수·왕겨·굴껍질 등 농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스 함량을 60% 이상 섞어야 인증이 가능했지만, 이 경우 납품가가 6~7배가 올라 사실상 시장에서 아무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바이오메스를 첨가하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1~2년 내에 분해가 된다. 개정안은 바이오메스 함량이 20% 이상만 되어도 인증을 해주도록 했다. 이 경우 원가 상승 부담은 10% 이내다. 뉴랩은 이미 친환경 기술 개발을 완료해 놓았고, 현재 벤처기업 인증도 준비 중이다.

### EU, 미국과 맺은 FTA로 수출길 청신호


한편 뉴랩은 국내 코스트코코리아 납품을 계기로 코스트코 미국 본사에 납품을 제안한 상태다. 코스트코가 미국, 유럽 등의 매장에 공급하고 있는 중국산 등의 저가 제품과 비교해볼 때 뉴랩의 제품이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중국에 비해 한국이 위생에 대한 인식이 더 높고, 또 한국의 주부들이 손으로 직접 버무리는 음식이 많다 보니 위생장갑 등 식품 포장재에 대한 품질은 한국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랩 제품의 생산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종권 대표.



특히 한·미 FTA는 이런 상황에서 호재가 됐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제품들은 철저하게 저가 제품으로 ‘전’ 단위까지 마진을 매길 정도로 박한 시장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뉴랩의 제품들(HS코드: 3924.10-플라스틱 재료의 주방용품)은 3.4%의 관세가 매년 0.3%씩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1년이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또 한·EU FTA 발효로 6.5%이던 관세가 즉시철폐돼 무관세로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FTA로 수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뉴랩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한 이후 경기도에서 개최한 G페어에서 미국 할인마트 공급자(바이어)와 직접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홍콩수출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510개 매장을 가진 코스트코의 PB(Private Brand: 대형마트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상표) 브랜드인 ‘커크랜드 시그니처(Kirkland Signature)’ 상표를 달고 납품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뉴랩은 새로운 시설들을 만드느라 톱질과 망치소리가 한창이다. 코스트코 납품 시 필요한 SQF2000과 HACCP 인증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관리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다. 직원 식당, 샤워 시설 등 글로벌 기업들은 납품업체의 근로환경까지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이다. 당장 수출이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는 “준비를 안 해 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한다”며 패기 넘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 원산지관리사

이상윤 페이퍼코리아 구매사업부 과장

FTA 시대 필수 자격증,  
사후검증도 문제 없어요

기존 WTO 체제에서는 원산지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단순했지만, FTA 체제에서는 개별 FTA별로 원산지 규정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원산지관리사’는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으로 최근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글 | 우종국 기자 사진 | 서범세 기자

페이퍼코리아는 1943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제지회사로, 신문용지 및 크라프트지(포장용 갈색 용지)를 만드는 회사다. 연 매출 약 2,300억 원, 직원 210여 명 규모로, 국내 주요 일간지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 IT 제품의 포장용 박스를 만드는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페이퍼코리아는 순수하게 폐지를 활용한 제품만 만들고 있는데, 원료인 폐지는 국내에서 60~70%, 미국에서 30~40%를 수입하고 있다. 완제품은 태국·필리핀·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으로도 일부 수출하고 있다. 수출 비중은 매출 대비 약 30%로, 2년 전에는 50%에 달했다.

전북 군산 사업장에서 6년째 구매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윤 과장(36)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3일간의 교육을 받은 뒤 12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체계적인 FTA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

전북 군산 사업장에서 인터뷰한 이상윤 페이퍼코리아 구매사업부 과장. 이 과장은 “수입자는 직접적인 관세 인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가 소홀할 경우 미납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며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졌기 때문에 수출입 담당자에게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필수”라는 것이 자격증에 도전한 이유다.

신문용지·포장용지 등 종이류는 수출 시 해당국의 관세가 거의 없어 원산지증명서 등의 업무보다는 원자재를 수입할 때의 원산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원산지 관리라고 하면 수출만 생각하는데, 수입도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은 수입자이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나중에 미납한 관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주요 원자재인 폐지의 경우 수입 관세가 거의 없는 제품이다. 대신 생산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계장치·소모품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제지기에서 탈수 기능을 담당하는 ‘캔버스’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한·아세안 FTA로 8%이던 관세가 철폐됐다. 역시 탈수 과정에 필요한 ‘독타블레이드’는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8%이던 관세가 철폐됐다. 이를 통해 회사는 매년 8억~10억 원의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 과장은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는 반면 혜택을 보는 산업도 있다. 한국은 수출을 안 할 수 없는 만큼 FTA로 얻은 이득으로 피해를 본 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



지상중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실무전문가과정

## 서비스협정 강의를 ‘귀 쫓긋’…학구열 뜨거웠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의 지원을 통한 전국 7개 대학의 ‘FTA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그 중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FTA실무전문가를 위한 한 학기 단기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진행된 FTA실무전문가과정인만큼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기업 실무자, 관세사 등 각계에서 모인 수강생들은 토요일 아침부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강의에 임하고 있었다. 글 사진 | 우종국 기자

“이제 국내에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FTA 투자협정상 자유화협상은 대부분 서비스협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국내 GDP 중 서비스 분야가 절반 이상이고, 서비스 자유화는 국가적 규제 권한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보니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를 키워야만 합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의실에서 진행된 ‘WTO/GATS & FTA 서비스협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 강의를 진행한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변호사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전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및 통상조정과장을 지내며 우루과이라운드 때부터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상까지 서비스 협상 수석대표를 지냈다. 서비스 협상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서비스협정은 WTO 및 한·EU FTA에서 적용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한·미 FTA에서 적용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크게 나뉜다고 설명했다. EU의 경우 경제 격차가 큰 나라들이 모여 협상을 하다 보니 개방도가 비교적 낮은 포지티브 시스템을 선택했다. 자유화 분야를 일일이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네거티브 시스템의 경우 보호해야 할 산업을 빠뜨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개방되어 버리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분야를 전수 조사해야 하는 등 협상 전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WTO 및 한·EU FTA에서 규정한 포지티브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개방 수준을 높였더라도 협상 체결 당시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반면(standstill 규정), 한·미 FTA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자발적 추가 자유화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ratchet(레킷) 규정). 다만 이 레킷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한·미 FTA에서는 상품 및 농산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Annex I 현재 유보). 또한 보건(의료)·사회·교육 등 44개 분야는 미래유보(Annex II)하여 원천적으로 적용을 배제했다. 레킷이 적용되는 분야라도 합리적 국내 규제는 계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가면 기계만 있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제조업은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 고용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만큼, 한국은 개방을 계기로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 경쟁을 통한 체질 강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FTA실무전문가과정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오후 강의를 진행한다. 3월 23일 오전 강의를 맡은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변호사(강단 왼쪽)를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대외부장·강단 오른쪽)가 소개하고 있다.

지상중계2 한·미 FTA 발효 1주년 기념,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전략 세미나

## “원산지 담당자 자주 바뀌면 정밀 검증 가능성 커”

지난 3월 15일, 정확히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작은 세미나실에서 하려고 했지만, 687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570명 참가)하면서 코엑스 그랜드볼룸으로 긴급히 장소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사후검증이 업계의 뜨거운 ‘핫 이슈’임을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다. 글 | 우종국 기자 사진 | 김기남 기자

### 01 한·미 FTA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성과와 향후 과제

첫 세션을 맡은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한·미 FTA는 미국을 한국의 내수시장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별 수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품 중 기어박스·머플러·배기관·차축·서스펜션 등은 2011년까지 대미 수출액이 400만 달러 이하였으나, 한·미 FTA 발효 이후 2.5%의 관세가 즉시철폐되면서 1,510만~9,490만 달러로 크게 늘면서 한·미 FTA의 효과를 입증했다.

명 수석연구원은 “2011년 일본산 수입차 점유율(11.7%)이 미국산(9.6%)보다 높았으나, 2012년에는 미국산 수입차(15%)가 일본산(10.4%)을 크게 앞서며 역전이 됐다. 이것만 보면 한국과 미국이 상호 윈윈하고 있다는 증거(단, 미국에서 생산된 독일·일본 메이커는 미국산으로 분류)”라고 분석했다.

### 02 한·미 FTA 사후검증 절차 및 수출자의 대응 전략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이대복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세관의 검증 절차를 소개했다. 사후검증의 시작은 ‘CBP Form 28’로 알려진 정보제공요청서로 시작된다. CBP는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약자다. 이 고문은 “국내 기업이 이것이 사후검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P는 제출 받은 원산지증명 자료만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상태에서 종료하나 필요하면 추가 절차가 진행된다. 추가 질의는 CBP Form 446(검증질의서)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CBP Form 29를 통해 이행통지를 통고하는데, 이 경우 예비결정은 20일 이내 추가소명자료 제출, 확정결정은 부족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고문은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으로 융통성을 주는 것 같지만, 한 번 걸리면 호되게 당하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03 미국의 FTA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 - 사례를 중심으로

세 번째 세션을 맡은 임성균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FTA제도개선타임장은 “최근까지 미국 세관(CBP)로부터 자동차 부품·타이어·섬유·식품류 등 20여 건의 검증이 들어왔다. 한·미 FTA가 이제 1년을 넘어서 아직까지는 간접검증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올해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직접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임 실장은 최근 한·미 FTA 검증 사례를 발표했는데, 유아용 카페트를 수출하는 국내기업 A사의 경우, 수출품은 역내산 판정이 불가능한 제품이었으나, 수입자의 강력한 요구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우다. 미국 세관은 이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확인하고 미납 관세를 요청했는데, 수입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관세를 납부했다. 임 실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04 미국의 FTA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 - 주요 법률 쟁점


네 번째 세션을 맡은 이성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후검증 관련 미국 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AGOA(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미국이 아프리카 개도국을 위해 만든 것) 사례를 들었다. 폴리USA가 스와질랜드에서 생산한 의류를 무관세(기준 관세 16%)로 수입했지만, 미국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까지 간 것이다. 법적 쟁점은 스와질랜드 공장의 재봉과 재단 공정의 앞뒤 순서가 서류상 맞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폴리USA는 “스와질랜드의 경제 수준으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세관의 특혜 관세 적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미국 세관의 현장검증 시 원산지 업무와 상관 없는 생산·영업·회계 등 타 부서 담당자를 돌발적으로 인터뷰하고 직원들 진술의 상호 불일치를 체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리허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05 한·미 FTA 사후검증과 수입자의 대응전략

마지막 세션을 맡은 박현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대개 세미나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썰렁하게 마련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남아 계신 걸 보니 지금 이 이슈(사후검증)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세션을 시작했다. 그는 “세관 입장에서 현장검증은 △수입량이 많고 △관세인하율이 크고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운 품목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사후검증 비용(출장비)을 감안하면 수입량이 많은 대기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박 담당관은 “사후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 내 담당자와 시스템, 서류를 잘 갖추는 등 ‘합리적 주의를 잘 기울이고 있는’ 기업은 제출 서류도 잘 받아 준다. 이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원산지 담당자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이다. 사람이 자주 바뀌면 회사가 그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이는 곧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운명은

## 한국, TPP와 RCEP 사이 균형 잡아야

한·미 FTA 발효 1년째인 지난 3월 15일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일본의 TPP 참여 선언으로 그간 논의가 진전되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은 균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미 아세안 국가 중 4개국이 미국 주도의 TPP 논의에 참여하면서 TPP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에 갈등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향후 한국은 RCEP과 TPP 논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글 |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통상학 박사)

동아시아 FTA는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에 의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에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도 동아시아 FTA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9년에 들어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가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된 후 일부 진전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세안+3 차원의 FTA인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East Asia FTA)를 선호하는 중국과 아세안+6(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차원의 FTA인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terhsip in East Asia)을 선호하는 일본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다.

한편, 아세안은 한·중·일 FTA 협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아세안 중심주의(centrality)가 위협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미국·일본이 참여의사를 밝

히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요인도 RCEP이 추진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이 참여하면서, TPP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에 경쟁자로 부상되었고 아세안 내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세안의 우려는 2011년 11월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과 아세안+6의 타협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The ASEAN Framework for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1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와 함께 RCEP의 협상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 RCEP이 동아시아 차원의 FTA로서 위상을 가져야

RCEP 협상에는 아세안+6 회원국인 16개국이 모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16개국의 경제발전격차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CEP과 한·중·일 FTA 및 TPP 등 여타 FTA 간의 관계, 협상목표 설정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높은 자유화 수준을 가진 FTA가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RCEP은 높은 수준의 FTA를 강조하고 있으나 역내 기체결 FTA들과 병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역내 양자간 FTA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RCEP이 동아시아 차원의 FTA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까지 아세안공동체 건설이라는 중대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RCEP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아세안 의장국이 브루나이(2013년), 미얀마(2014년) 등 비교적 소규모의 국가들로 예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셋째, RCEP이 한·중·일 FTA, TPP 등 여타 FTA의 진전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TPP의 경우 TPP 참여국과 비참여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 4개국



향후 RCEP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RCEP의 높은 자유화 수준의 지향과 참여 회원국의 현실간의 갈등이다. TPP와의 경쟁구도로 인해 RCEP이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해야 하지만, 아세안 및 아세안 FTA 파트너들의 기체결 FTA 수준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TPP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IPR)과 정부조달의 투명성, 비관세장벽 철폐,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통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아세안의 리더십에 있다. 개발도상국의 모임인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은 정치·외교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축성이 강점인 아세안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은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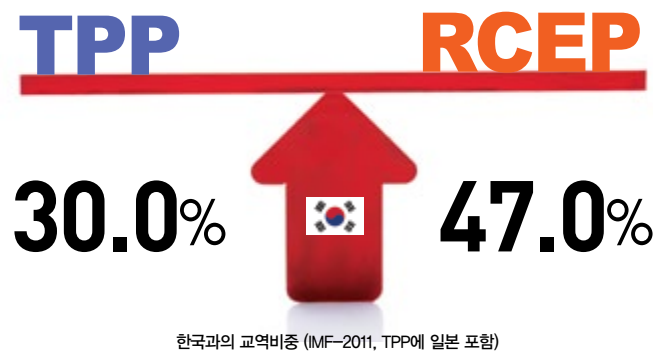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고 있고, 대만, 필리핀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 한국의 RCEP 교역량 47%, 무역자유화에 기여해야

한국의 무역에서 중·일 및 RCEP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30.2% 및 47.0%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RCEP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 동안 0.38~0.68%, 10년 동안 1.21~1.76%의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CEP과 한·중·일 FTA 및 TPP 등 여타 FTA 간의 관계, 협상목표 설정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

일본의 TPP 참여는 동아시아 FTA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선택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처가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외교장관회의 모습.





한·칠레 FTA 발효 9주년의 성과와 의미

## 중남미 교역량 ‘쑥쑥’...환태평양 교두보 역할 ‘톡톡’

이미 수교 50주년을 넘은 우리나라와 칠레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한류), 외교 분야에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특히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점점 증가하는 환태평양지역의 국제정치경제동맹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첫 번째 FTA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명실상부하게 세계 유망 시장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환경을 넓히고 새로운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신호탄이었다. 지난 9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해서 조망해 보자.

글 |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교수

학계 및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한국과 칠레의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첫 번째 FTA로서 공식 협상에만 3년,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 4년여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협상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게 해 준 귀중한 역할을 했다.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갈등과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협상 기술을 체득했으며 국내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 FTA 영향에 대한 이익단체들 사이 갈등 조율 등 일련의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는 국내외적으로 선행 학습이라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했고,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협상 로드맵을 형성하는 등 이후 페루, 콜롬비아와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데에 귀중한 시금석 역할을 했다.

### 한국은 공산품 팔고, 칠레는 천연자원 팔고

2010년 칠레는 남미 최초로 OECD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은 FTA 체결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 왔고 한국은 이미 칠레의 5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해 있다는 사실에서 주목하듯이, 칠레 자체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의 중

“한·칠레 FTA는 칠레 인근 국가들에 FTA 경쟁 및 협상 안정을 유발시켜 우리나라와 남미지역 국가들과 FTA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과 FTA 협상에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칠레 FTA 협상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됐다.

교역 조건에서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IT산업 등 공산품 중심의 우리나라와 자원(구리 등 원자재, 포도 및 농축산물) 중심의 칠레는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국 기발효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 구리 등 원자재 수입이 증가해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교역량의 증가로 인한 양적 팽창 차원에서 양국 무역관계는 발전하고 있지만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감소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칠레는 우리나라에 점점 원자재 공급 역할 국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FTA 효과 중 ‘무역전환 효과(관세철폐로 생산비가 더 비싼 역내국 제품을 수입하면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전체적인 차원의 성과 및 효과 평가는 유보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칠레 광업 부문 해외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 규모는 적어 향후 경제성 평가는 더욱 관망이 필요하다(단, 돼지고기와 포도 수입이 연평균 11.4%, 33.6% 증가세).

### 장기적으로 경제외적 효과도 기대

언급했듯이, 단기적 차원에서 교역량의 증가와 산업구조에서 상호보완적 형태의 FTA가 얼마나 잘 성과로 나타났는가가 그리고 경제성은 유지되었는가가 9년간의 평가에서 지배적이라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각에서 이를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빈국 입장에서 특히 현재 자원외교가 강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칠레의 FTA 효과는 무역전환효과 차원에서 더 무게를 두고 관망해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처음 한·칠레 FTA 협상의 기초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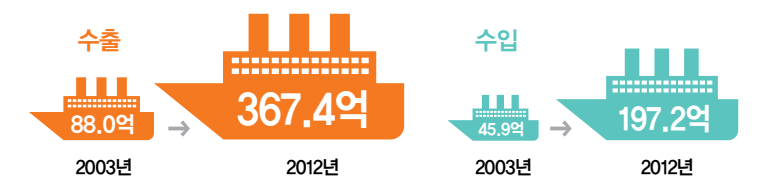
었던 중남미 지역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상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2004년 칠레와의 FTA 이후 페루와 콜롬비아 등 태평양지역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남미와의 교역은 2003년 수출 88억156만 달러, 수입 45억9448만 달러에서, 2012년 수출 367억4,674만 달러, 수입 197억2,260만 달러로 증가했다(한국무역협회). 이는 칠레 인근 국가들에 FTA 경쟁 및 협상 안정을 유발시켜 우리나라와 남미지역 국가들과 FTA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과 FTA 협상에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FTA 효과를 전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교역량 증가 및 무역 확대와 더불어, 양국 간의 정치 및 외교적 차원에서 효과는 국제정치에서 중요하다. 단기 차원의 양국 간 자유무역 증진은 중장기적으로 국제외교 협력이라는 단계로 ‘파급효과(spill over)’를 낳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통합의 역사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다만 국내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칠레 무역수지적자 부분과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농업부분의 손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은 최소한 요구되며, 대외적으로 칠레가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의 무역경쟁국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칠레 FTA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어 전략과 더욱 적극적인 시장개척 및 투자의 증대가 요구된다. ㉠

### 한·칠레 FTA 전후 중남미 교역량 비교

(단위: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FTA ① 왜 FTA를 추진해야 하나?

##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가로 양국 모두에 이익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 EU를 비롯해 총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를 추진할 때 보면 FTA에 반대하는 산업의 저항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FTA로 이익을 보는 분야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들이 있는데 정부는 왜 계속해서 FTA를 추진할까? 또 FTA로 득을 보게 되는 그룹들은 왜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글 |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국제통상학 박사)



양해진 작가

FTA는 한마디로 말해 서로 시장을 트고 각자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FTA의 특성상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시장이 FTA 체결 상대국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물건을 팔수 있게 되므로 이익을 보게 되지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외국 의 더 싸고 질 좋은 상품과 경쟁해야 하므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 별 이해득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FTA를 체결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미국과의 FTA에서 수입증가가 우려되지만, 일본과의 FTA에

서는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자동차 산업은 한·EU FTA로 인해 독일 등 수입차와 경쟁이 더 치열해 지지만, ASEAN(아세안)과의 FTA에서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거래비용 감소하면 양국 간 무역량 증가해**  
그렇다면, FTA 피해산업이 발생하는데 왜 정부는 계속해서 FTA를 추진하는 것일까? 그것은 FTA 추진이 산업별로 는 엇갈린 영향을 주지만,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FTA 체결 이전에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었던 양국 간의 무역로가 FTA 체결로 인해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거래비용이 감소되어 양국 간 무역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칠레 FTA를 예로 들어보자. 한·칠레 FTA 발효 전에는 우리나라와 칠레 간 교역량(수출입)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런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양국 간 교역액은 한·칠레 FTA 발효 이전인 2003년에 비해 약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의 교역액이 1.8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팔목

“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관세장벽 보호 아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

할 만한 성과이다. 소비자들은 수입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어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전에는 부유층이나 마셨던 와인을 한·칠레 FTA나 한·EU FTA 발효 이후 일반 서민들도 부담 없이 즐기게 된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또한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비효율적인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되고, 그동안 관세장벽 보호 아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A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강하나 B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가정하자. FTA 이전에 정부는 B 산업을 관세장벽으로 보호해 왔을 것이다. FTA 발효 이전에는 B 산업에 투입되었던 노동이나 자본이 FTA 이후 관세철폐로 보호가 사라지게 되면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산업 A는 상대국까지 물건을 더 많이 팔수 있게 돼서 노동이나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산업 B에 투입되었던 노동과 자본이 경쟁력 있는 산업 A로 이동하게 되면, 동일한 양의 노동이나 자본 투입으로 더 많은 양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은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월급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돼서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들은 FTA 체결로 인해 더 값싸고 질 좋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어떤 FTA를 체결해도 이익을 보는 집단에 속한다.

### 피해 산업은 적극적 지원으로 구제해야


그렇다면, FTA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되는 소비자들과 산업은 왜 조용한 걸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치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피해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반면 이익은 넓은 범위로 분산된다는 데 있다. 즉, 피해산업의 경우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해서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손실이 크고, 또 구성원 간에 조직화가 비교적 쉽다.

반면, 이익을 보게 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보다 넓은 범위로 분산되어 소비자 개개인이 체감하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무임승차의 가

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익이 예상되는 산업은 자신들이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정부가 FTA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익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서 무임승차하게 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커지면 조직화가 어려워지고, 조직화가 어려워지면 집단을 대표하는 목소리도 크게 표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FTA 정책 추진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에 반대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집단도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해 전체적으로 균형된 의견이 FTA 협상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이 있다고 해서 FTA를 무작정 안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대외적으로 FTA를 추진하되, 대내적으로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산업에 있던 노동이나 자본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FTA농어업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만들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수출품을 좀 더 많이 팔아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마당에, 피해 우려로 인해 FTA 정책 추진 자체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 FTA

# News

정리 | 이현주 기자



##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공동체 논의 '시동'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이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서울(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최경림 외교부 FTA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은 위지앤화(俞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측은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중·일 FTA 협상은 지난해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별도로 개최된 3국 통상장관회의(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1차 협상을 금년도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간 한·중·일 FTA는 2003~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2011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친 뒤 2012년 5월 13일 3국 정상회의 때 FTA 협상의 연내 출범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을 즉시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2년에 3차례 사전 실무협의를 개최했고, 지난해 11월 협상 개시 선언에 이어 올해 2월 20~21일 제1차 협상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협상에서는 향후 협상범위, 협상 진행방식 및 행정사항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감분야를 보호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경제협의회·미주리주, 경제협력에 관한 약정 체결

## 한·미 FTA 1주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경제협력 추진키로

한미경제협의회(회장 한덕수)는 3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미주리주(Missouri)와 경제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1973년 설립된 한미경제협의회는 한미 양국 간 유일한 민간 경제협력기구로서 민간외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 50개주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현호 한미경제협의회 부회장(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미교역 전 분야에 걸쳐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었다. 한미경제협의회도 한미 양국 경제인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지원해왔다"며 "금년에도 양국 간 교류 및 사절단·마케팅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미 간 경제협력 논의 차 방한한 미주리주 제이 닉슨(Jay Nixon) 주지사는 주정부 고위관료 및 현지기업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한미경제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체결된 약정서는 △한미경제협의회와 미주리주간의 무역거래액 6억 달러 달성 △정기적 세미나·컨퍼런스를 통한 정보교류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는 제이 닉슨 주지사, 성김 주한미국대사, 류진 풍산 회장, 조해형 나라홀딩스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을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 대표, 47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 수출기업 애로해소 현장간담회 개최

## FTA활용, 엔저 관련 애로 현장에서 해결방안 모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4일(목) 오후, 인천에 있는 프레스 제조기업인 심팩(SIMPAC)을 방문하여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이 직접 FTA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업 실무자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회의'로 진행됐다.

기업들은 FTA 활용과 관련해 FTA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원산지 관리 단계에서 기업의 정보 누출 가능성 방지, 사후검증 대비 인력·정보 부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장·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대응 등을 위한 유의점, 자체 관리방안 등을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현장밀착형 간담회 개최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에 더불어, 현장에서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 발간

## 본격 사후검증 실무 매뉴얼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는 3월 15일 한·미 FTA 1주년을 맞아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총 6권)'을 발간했다.

최근까지 한·미 FTA 활용 수출자들을 대상으로 약 20건의 검증이 미국 세관(CBP)으로부터 들어오면서 사후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전문가 자문,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편을 비롯 섬유 및 의류,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농수산물 등 5개 산업별로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을 발간한 것이다.

안현호 센터장은 "앞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미국 세관 당국의 FTA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국 세관 당국의 FTA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에는 업종별 대미 수출실적, HS 품목분류체계, 원산지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미국 세관의 검증 관련 법령 분석, 실제 검증 절차 및 검증과 관련해 사전에 참고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담겨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의 힘

## 점유율 7년래 최고…스크린쿼터 우려 씻어

요즘 한국영화계는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 혹은 부흥기를 맞고 있다. 양적 질적 팽창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그 만들새를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이전과 이후 확 달라진 한국 영화계 분위기를 짚어보자.

글 | 이현주 기자



요즘 국내 영화계에는 속칭 ‘대박작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해 개봉한 영화 ‘도둑들’은 누적관객 1,300만 명 이상을 돌파하며, 역대 2위의 관객 수를 기록하였고, ‘광해, 왕이 된 남자’ 역시 누적관객 수가 1,231만 여 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제 겨우 1분기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개봉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이 개봉 52일 만에 누적관객 수 1,232만 명(3월 15일 기준)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영화 누적관객 수 3위에 등극했다. 특히 ‘7번방의 선물’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 없이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영화계는 더욱 의미 있는 성공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월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82.9%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년 전에 비해 관객 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액션 영화로는 드물게 영화 ‘베를린’이 7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영화 ‘신세계’ 역시 개봉 26일 만에 관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또 한 편의 천만 관객 영화가 탄생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넣고 있다.

### 연이은 할리우드 진출로 한국 영화의 힘 증명

더욱 괄목할 만한 성장의 예는 바로 한국 영화인들의 활발한 할리우드 진출이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톰 행크스, 할 베리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배두나’, ‘지.아이.조’와 ‘레드 2’에 주연급으로 출연한 ‘이병헌’ 등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할리우드에 한국 영화인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배우만이 아니다. 이미 개봉한 ‘라스트 스탠드’의 김지운 감독, ‘스토커’의 박찬욱 감독,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 등은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으며 진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할리우드에서 인정받고 있는 세 감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미 각종 세계 유력 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감독 특유의 연출력과 영화관을 할리우드 시스템 하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이다.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영화에서 발전했던 감독 특유의 색깔을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도 그래도 보여주었다는 점은 한국 영화와 한국 감독들에 대한 할리우드의 평가를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영화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은 개인만이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촬영감독이나 조명감독 등 다양한 한국 영화 인력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영화인들의 진출만 아니라, 최근 부쩍 리메이크 되는 한국영화도 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이미 그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원빈의 현란한 액션이 돋보였던 영화 ‘아저씨’와 정우성·손예진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역시 리메이크 될 예정이다.

### 스크린쿼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늘어


한·미 FTA 체결 전, 많은 영화인들은 한·미 FTA가 국내 영화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를 쏟아내었다. 협상 전 미국이 요구한 선결조건 중에 ‘스크린쿼터 축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화인들은 이에 대해 덩치 큰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 속에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국내 영화 점유율은 떨어질 것이고, 이는 곧 국내 영화에 대한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고, 국내 영화 제작편수가 감소되어 급기야 영화 관련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며 앞장서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한 유명 감독은 우리의 일과 정신이 담긴 한국영화가 미국 문화로 변질되어 갈



한국 영화의 수출에 이어 배우·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최근 활발해지면서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영화 ‘광해’의 일본 개봉을 앞두고 지난 1월 기자 회견 중인 배우 이병헌.

것이리며, 목청 높여 한·미 FTA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결국 2006년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연간 106일에서 73일로 줄어들었다.

물론 그런 의견들 모두 한국 영화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정 어린 우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우려들이 그야말로 전부든 우려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영화가 외면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발효 이후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만 해도 세 편 이상이었고, 흥행 대박이라 부를 수 있는 400만 이상의 작품도 여럿 탄생하였다. 이는 한·미 FTA 이후 오히려 한국 영화가 질적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잘 만들기만 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영화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 과감한 영화 투자들이 줄을 잇고 있고, 그 덕분에 예전에는 쏠림현상이 있었던 영화장르가 요즘에는 사극·액션·멜로·추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제작되고 있다. 

## 2012년 국가별 무역 베스트 10

## 한국 8강 진입... 수출경쟁력 강화는 '과제'

글 | 우종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WTO(세계무역기구)의 세계무역통계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1조675억 달러로 세계무역 8강에 진입했고, 2위 중국은 1위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최근 EU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탈리아(9위)를 제치고 8위로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순위는 2000년 13위에서 2003년 12위, 2007년 11위, 2009년 10위, 2010년 9위로 10년 사이 다섯 단계를 뛰어올랐다.

미국의 교역량은 3조8,824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위 중국이 교역량 3조8,668억 달러로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막대한 수입 규모를 바탕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을 월등하게 앞선 1위다. 미국은 2000년에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 독일 등을 추월하며 수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2%로 미국(5.9%), 독일(8.1%), 일본(4.3%)을 크게 앞선다. 한국의 2000~2012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2%로 역시 미국, 독일, 일본을 앞서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수출 및 교역 3, 4위의 무역강국이지만, 2000년 이후 독일 수출

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일본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특히 2000~2012년 독일의 무역수지는 546억 달러에서 2,395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일본의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 흑자에서 872억 달러 적자로 크게 감소했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전문 인력 등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비결로 풀이된다.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역 강국에 올랐으나, 한국, 중국 등 후발국의 추월과 엔고, 해외생산 확대 등에 따라 수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발달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중계무역을 통해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하며 5위에 올랐다. 5위 자리를 내준 프랑스는 6위에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시장의 관문으로 통하는 로테르담항과 스키폴공항 등의 선진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중계·복합무역이 발달한 것이 비결로 분석된다.

독일, 네덜란드처럼 무역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과 선진 물류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수출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미진한 것 등이 해결 과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제조업 생산 여력에 한계가 있어 기존 상품 위주의 수출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어려운 만큼, 플랜트 엔지니어링, 유통 물류, 컨설팅,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

도전!  
FTA퀴즈

##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국은?



다음 문장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이번 호를 열심히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 올 4월 발효 9년을 맞은 한·□□ FTA는 한국이 최초로 맺은 FTA다. 한국이 □□와의 FTA를 계기로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이끌어 내면서 □□는 한국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했다.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국가는? (난이도★)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이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에서 개최됐다. 이는 지난 해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캄보디아 프놈펜) 때 별도로 개최된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차 협상을 금년도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에서 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국가는? (난이도★★)

서비스협정은 WTO 및 한·EU FTA에서 적용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한·미 FTA에서 적용한 ‘☐☐☐☐ 리스트 시스템’으로 크게 나뉜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자유화 분야를 일일이 명시하되 명시되지 않은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것이고, ‘☐☐☐☐ 리스트 시스템’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명시하되 명시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난이도★★★)

4 기존 WTO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단순했지만, FTA 체제에서는 개별 FTA별로 원산지 규정이 다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는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올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지정되면서 최근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난이도★★★)

**5** 한·미 FTA에서는 상대국 세관이 수출국 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직접검증 방식이다. CBP(U.S. Customs and Board Protection: 미국 세관)는 사후검증 시작 시 'CBP Form ☐ ☐'로 알려진 정보제공요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보받은 기업은 30일 이내 필요한 서류를 CBP에 제출해야 한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난이도★★★★)

## 당신의 FQ(FTA 지수)는?

0개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군요.  
1~2개 이제 FTA에 흥미를 느끼고 계시군요.  
3~4개 제법 이시군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5개 당신은 이미 FTA 전문가!

2012년 국가별 무역순위 및 무역 규모 (단위: 달러)

순위	국가	교역량	수출액
1	미국 	3조8,824억(3.6%)	1조5,471억(4.5%)
2	중국 	3조8,668억(6.2%)	2조489억(7.9%)
3	독일 	2조5,757억(-5.5%)	1조4,076억(-4.4%)
4	일본 	1조6,844억(0.4%)	7,986억(-2.9%)
5	네덜란드 	1조2,474억(-1.0%)	6,564억(-0.7%)
6	프랑스 	1조2,439억(-5.0%)	5,695억(-4.5%)
7	영국 	1조1,494억(3.5%)	4,686억(-1.0%)
8	한국 	1조675억(-1.1%)	5,479억(-1.3%)
9	이탈리아 	9,869억(-8.7%)	5,005억(-4.3%)
10	홍콩 	9,479억(-1.9%)	4,432억(-2.7%)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WTO 세계무역통계 추산)

인터넷: [www.okfta.or.kr](http://www.okfta.or.kr)

모바일: [m.okfta.or.kr](http://m.okfta.or.kr)

# 원산지 OK! FTA활용 OK!

FTA 특혜관세율, 원산지기준, 지원사업 안내

FTA 최신정보에서 인터넷 상담까지

OK FTA에서 모두 해결하세요.



## 1. 체결정보

- FTA협정문,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의 FTA체결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 2. FTA특혜관세율

- 최신 업데이트된 품목별 수출입 FTA특혜관세율 정보를 체결국별로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3. 원산지기준

-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모든 FTA협정별로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4. FTA활용

- FTA지원사업 안내, FTA활용방법, 성공사례 동영상 교육을 통해 FTA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5. 자료실

- 최신 FTA정보, 세미나 동영상, 각종 보고서, 법령/서식 등의 정보를 협정별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6. 모바일 서비스

- 스마트폰을 통한 관세율, 원산지기준, 협정문, FTA활용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  
- 관세사 등 국내 최고의 FTA전문가가 여러분의 FTA활용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는 스마트 고객 상담 운영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 OK!**  
**T. 1566-5114 / [okfta.or.kr](http://okfta.or.kr)**